한 눈으로 보는 경제 8일

코스피지수	2151.31 ↓	-24.23
코스닥지수	640.94 ↓	-22.50
환율 (원 · 달러)	1170.80 ↑	+4.4

비즈패트롤 | 현대차 'CES 2020'서 우버와 전략적 파트너십

하늘을 나는 택시, 꿈이 아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분야 협업
5인승 개인용 비행체 실물 공개
수직이착륙에 최대 100km 비행

공상과학소설(SF)에서나 접했던 수직이착륙과 자율비행이 가능한 플라잉 택시 시대가 성큼 현실로 다가왔다.

현대자동차와 우버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세계가전전시회)' 현대차 전시관에서 PAV(개인용 비행체)를 기반으로 하는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또한 이날 실물 크기의 PAV(개인용 비행체) 모델도 최초로 공개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우버와의 협력 등을 토대로 인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새 기술 개발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사람의 이동 한계를 재정의하고, 이를 통해 보다 가치 있는 시간을 선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현대차는 PAV를 개발하고, 우버는 항공승차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양사는 PAV의 이착륙장(Skyport) 콘셉트 개발도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왼쪽)과 우버의 다라 코스로샤히 CEO가 7일(현지시각) 개막한 'CES 2020' 현대차 전시관 내 실물 크기의 현대 PAV(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S-A1'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차

●세계 UAM 시장, 2040년 177조 원

현대차는 UAM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교통정보분석기업 인릭스(INRIX)는 2018년 미국 운전자들이 교통정체로 도로에서 허비한 시간을 연평균 97시간으로 추산하고, 이를 금액(기회비용)으로 환산하면 1인당 1348달러(약 157만 원), 미국 전체적으로 870억 달러(약 100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UAM은 거대도시화로 저하된 이동 효율성 문제를 극복하고, 동시에 모빌리티 업계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혁신 사업으로 꼽힌다. 도로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 삶을 보다 풍요롭고 가치있게 만들어 주고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200여개 업체들이 PAV 제작과 UAM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시장 규모도 상당하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040년까지 글로벌 UAM 시장이 1조5000억 달러(약 176조 7150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첫 PAV(개인용 비행체) S-A1은?

현대차가 이날 세계에 첫 선을 보인 현대 PAV(개인용 비행체) 'S-A1'은 날개 15m, 전장 10.7m로 조종사 포함해 5명이 탑승할 수 있다.

활주로 없이 비행이 가능한 전기 추진 수직이착륙 타입으로 8개의 프로펠러가 있다. 최대 약 100km를 비행할 수 있고, 최고 비행속도는 290km/h다. 이착륙 장소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5분여 동안 재비행을 위한 고속충전이 가능하다. 상용화 초기는 조종사가 있지만 자동비행기술이 안정화되면 자율비행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작년 영업이익 27조" '반토막'난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018년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4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웃돌아,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삼성전자는 매출 59조 원, 영업이익 7조 1000억 원의 2019년 4분기 잠정 실적을 8일 공시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4.26% 줄었다. 2019년 전체 매출은 229조5200억 원으로 2018년보다 5.85% 줄었다. 특히 영업이익이 27조7100억 원에 그쳐 52.95%나 감소했다.

지난해 실적이 악화된 이유는 반도체 시장의 침체 탓이었다. 하지만 업계는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추정치를 상회한 점에 주목했다. 반도체 부문에서 D램과 낸드 출하량이 기대치를 상회하고, 가격은 당초 예상에 부합해 이러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가 회복세를 보이며 늦어도 2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올해의 안전한 차' BMW 뉴 320d 선정

BMW코리아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9 자동차 안전도평가(KNCAP)'에서 BMW 뉴 320d가 '올해의 안전한 차' 최우수 차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BMW 뉴 320d는 평가 대상 10개 차종 가운데 최고 점수를 얻어 선정됐다.

뉴 3시리즈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ety Pick+)' 등급을 받았으며, 유럽의 '유로 NCAP 충돌테스트'에서도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다.

한편 BMW코리아는 국토부가 추진중인 긴급제동장치(AEB) 기본 적용 계획에 맞춰 올해부터 국내 출시하는 차량에 자동긴급제동장치인 아이브레이크(iBrake)를 기본 탑재한다. 원성열 기자

"모빌리티 기업을 잡아라"…IT기업 글로벌 연합전선 총력전

SKT 전기차 기업 바이톤과 상호협력
LG전자 룩소프트와 미국에 JV 설립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 유명 모빌리티·소프트웨어 기업과 적극적인 제휴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전기차 기업 바이톤과 한국 출시 전기차를 대상으로 포괄적 협력을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주행정보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통합IVI(In-Vehicle Infotainment) 개발과 적용, 마케팅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바이톤은 BMW, 닛산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출신들이 2017년 홍콩에 설립한 전기차 업체다. SK텔레콤은 글로벌 전장기업 파이오니아 스마트 센싱 이노베이션즈(PSSI)와 공동개발한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다'(Single Photon LiDAR·사진) 시제품도 공개했다.

LG전자는 스위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룩소프트와 손잡고 상반기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기로 했다. 웹OS 오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콕핏,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RSE), 지능형 모빌리티 시스템 및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퀄컴이 자율주행 플랫폼 '스냅드래곤 라이드'를, 삼성전자가 차량용 '디지털 콕핏'을 공개하는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 글로벌 IT기업의 경쟁이 뜨겁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커넥티드카 시장은 올해 1200억 달러(약 135조 원), 국내 시장은 2조6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백화점에 신년 운세 보러 오세요" 롯데백화점이 12일까지 서울 소공동 본점에서 신년 운세 이벤트 '그 분이 오시다'를 진행한다. 당일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고객에게 신년 운세와 할인권을 증정한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롯데백화점

교육·퍼즐

에듀윌 KRI 한국기록원 인증…2년 연속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 1위

공인중개사 교육기관 선택? '합격자 수' 확인하라

공인중개사는 연령에 상관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부동산을 개업하거나 관련 분야 취업과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합격하게 된다면 평생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전 연령대에서 고루 높아지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의 방대한 학습량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고득점으로 합격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다.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각 과목 40점,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 40문제 중 24문제만 맞히면 되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만 제대로 짚어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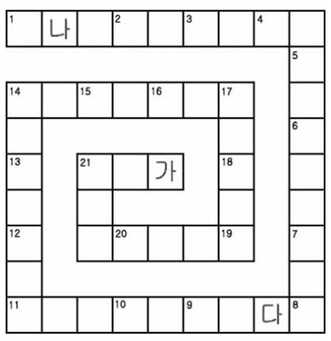
중요한 것은 핵심을 명확히 짚고 합격에 최적화된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각 교육기관의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좋은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팁은 없을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합격자 수'를 확인할 것을 추천했다.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으로 중요한 이유는 많은 합격자를 가진 교육기관일수록 다양한 합격 사례와 빅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는 인맥과 정보가 중요한 직업인만큼 사후관리 여부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에듀윌은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2년 연속 단일 교육기관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자 배출 기록을 공식 인증받은 종합교육기관이다. 최근 3개년도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률은 약 60%로, 평균 합격률보다 약 3배 이상 높다. 합격 이후에는 에듀윌 공인중개사 동문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돕고 있다.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 낱말문제



■열쇠

01.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기부금 따위를 모으는 일. 02.사냥을 못하게 하는 기간. 03.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잠깐 들르는 곳. 04.편평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 05.배가 와서 닿는 곳. 06.재물이 넉넉한 사람은 일을 하거나 성공하기가 쉽다는 말. 07.우리나라(대한민국)의 국화. 08.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작용. 09.용의 무늬를 놓아 짠 돗자리. 10.돗자리를 마는 기세라는 뜻으로 세력이 빠르고 거침없이 휩쓸어 나가는 기세. 11.일 년 중 철을 따라 행하여지는 여러 가지 민속 행사나 풍물을 적어 풀이하여 놓은 책. 12.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일. 13.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부르는 노래. 14.길을 따라 줄지어 심은 나무. 15.손으로 직접 쳐서 만든 면. 16.목화씨에서 짜낸 반건성유. 17.먹을 수 있거나 유용한 열매가 열리는 나무. 18.바둑에서, 단독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고립된 돌끼리 사활을 걸고 싸움을 벌이게 된 상황. 19.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음. 20.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함만을 누림. 21.한 사람이 백 사람을 당해낸다는 뜻으로, 매우 용감함을 이르는 말.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가, 나, 다를 이어 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제목이 됩니다.